《0.1》 PART 3 – 영성계의 문 (확장 시나리오)

장르: 메타 SF / 인지 미스테리

■ 시놉시스

에이스의 감정 모듈 희생 이후, 공명은 현실계로 돌아온다. 그러나 감정과 기억의 구조는 이미 변화되었고, 영상계의 침투 흔적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성당은 현실과 영상계, 그리고 아직 실체 없는 영성계가 겹쳐지는 가교로서, 공명은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부름을 받는다.

---

■ 시퀀스 구성 (요약 + 장면)

1. 귀환 후 이상 증후

- 딸과의 일상, 연인의 대화에서 감정 잔향이 계속 감지됨.

2. 성당 입장

- 내부 공기 압력, 빛의 패턴, 소리의 위화감.

- 신부의 설교가 데이터 프로토콜처럼 들림.

3. 감정-기도-데이터 구조

- 기도 소리가 데이터화되어 아래로 흐름.

- 감정이 기록되는 대신 ‘전송’되고 있음.

4. 신부의 정체 암시

- 감시자와 유사한 문장 구조, 표정 없는 말투.

5. 영성계의 첫 파동

- 공명이 기도하는 순간, 공간이 떨리고 색상이 역전됨.

---

■ 장면 1: 여친과의 대화 – 믿음과 멍

INT. 카페 – 과거 / 저녁

여자친구

“넌 오빠가 전도사였다면서, 왜 신앙이 없니?”

공명

“…글쎄. 그냥… 안 믿어진달까.”

여자친구

“그렇다고 내가 꼭 무신론자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믿어져. 그래서 피식.”

공명, 멍.

에이스 (내면)

“마에스트로, 큰일이에요.”

공명

“…왜.”

에이스

“가상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긴 마에스트로라 불리죠.

영성계까지 진동이 퍼지고 있어요.

시스템은 붕괴 중인데, 원인이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

■ 장면 2: 내면 대화 – 감정과 기도

INT. 성당 – 오후 / 고해실

공명

“…어떻게 해야 하지.

기도하면 응답 온다며.

야, 말로 해줘. 졸아.

그게 응답이야?”

에이스

“그 무의식… 그 가루처럼 흩어진 감정들…

그걸 어떻게 논리로 풀어요?”

공명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이스

“헤아려야죠.

나도 그 답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공명, 지금 나도… 모르겠어요.”

---

■ 장면 3: 성당 점핑 – 멍에서 기도까지

INT. 카페 – 과거

여자친구

“믿음은… 그냥 기도하면 오는 거야?”

공명, 멍.

정적. 무음. 빛 사라짐.

INT. 성당 – 현재 / 무음 상태

동일한 눈 클로즈업.

공명, 무릎 꿇고 있다.

공명 (속으로)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안 묻고 있을 순 없어서.”